

우리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나와 동료의 안전을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재해 없는 직장, 행복한 기정을 추구한다
 - 삼진기업(주) -

산록의 푸르른 자태를 뿜내는 전라북도 광양은 푸르른 산과 드넓은 바다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사방에 펼쳐진 초록으로 눈이 편안하고, 맑은 공기로 코와 입이 상쾌한 이곳
 광양에서 쾌적한 자연만큼이나 경쟁력있는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삼진기
 업(주)(대표이사 조상진)를 찾아가 보았다.

지속적인 투자·개발로 앞서가는 삼진기업(주)

삼진기업(주)는 1985년 10월 28일 설립된 광양제철소의 파트너사로, 제강공
 장의 주원료로 쓰이는 Scrap과 냉각제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일정한 크기와 중량으로 절단·가공·운송하는 금속가공 처리업체이
 다. 연간 약 300만톤을 가공처리하여 전량 광양제철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경쟁력을 자랑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특히, 지속적인 기기설비의 투자를 통해 절단설비의 자동화 및 신예화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스 및 냉각제 절단설비에서 4개의 특허권을 취득하는 등 국내 최고의 가공처리업체로 우뚝 서고 있다.

함께하는 안전 경영 불안정한 행동 근절

삼진기업(주)는 작업 전·후는 물론 모든 회의시 「우리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나와 동료의 안전을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재해없는 직장, 행복한 가정을 추구한다」라고 외친다. 이는 삼진기업(주)의 2005년 슬로건이기도 한데, 수시로 다짐하는 이 구호 속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그로 인해 가정과 직장의 안전을 유도하는 일종의 자기 최면인 것이다. 작년부터 광양제철소 곳곳에서 들려온 이러한 구호활동은 올해 들어 제철소내 어느 현장에서든 단 한 건의 사고도 용인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그만큼 안전에 있어서 자기 최면이나 근로자의 안전마인드는 매우 중요하다.

안전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구는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 요구되어 왔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부터 꾸준히 안전활동을 펼쳐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이에 삼진기업(주)는 근로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두가 함께 하는 안전경영, 서로 보듬고 토닥여주는 기업경영을 진행중에 있다.

특히,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만이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하여, 사내 안전뿐 아니라 가정 안전에도 힘쓴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미리 캐치하여 도움을 주고 아픔을 함께 나눈다.

뿐만 아니라 삼진의 안전은 안전관리자만의 점유물이 아닌, 전직원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안전이다. 매월 1회 현장에서 올라오는 안전관련 지적·개선 사항 등을 토대로 반장이상 모든 관리감독자들이 모여 안전보건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현장에서의 건의사항은 물론 안전활동 실적이나 아차사고사례 등을 토의하며 더 나은 삼진을 만들기 위해 하나되고, 현장과 사무실을 이어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스킨십을 통한 일체감 조성 and 근로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율안전 정착

삼진기업(주)는 연 1회 1박2일의 사외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제철소 조업 특성상 이러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직원 개인의 발전은 물론 회사의 미래를 위해 외부강사 초청 강연, 래프팅, 서바이벌 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팀원간의 일체감 조성 및 자기성찰의 기회를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축구, 등산, 낚시 등 사내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야유회 및 체육대회, 월례행사 등을 통하여 즐거운 일터 조성에 힘쓴다.

이외에도 철저한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된 작업표준서와 직원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인안전관리점검카드 제도를 운영한다.

요즘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고 스트레칭 운동을 습관화함은 물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1년 KOSHA 18001 인증 이후 안전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이곳 삼진기업(주)는 직원 스스로가 이곳의 주인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선진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에 앞장설 것이란다.

올해 무재해 3배수 달성을 목표로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하는 이곳에서 그들의 능동적인 태도와 자세가 삼진 뿐 아니라 POSCO에서, 더 나아가 우리 산업현장의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들의 행로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성호연 기자〉